여래 삼매 속 일체 존재가 평등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㊴ 〈원각경(圓覺經)〉 2

중생이 일체 모든 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불교를 만나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불자들은 법문을 사찰에서 직접 듣기도 하지만 인터넷과 TV, 라디오를 통해 많이 접한다. 그러나 법문을 듣고 스스로 수행을 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일방적인 깨침에 대한 정보만 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세계다. 고통을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를 보고, 듣고, 이해하여 반드시 실천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娑婆世界 見聞解行處).

수행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단 한 번의 수행이나 공덕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 학습, 끝없는 정진이 행복을 가져온다.

〈원각경〉을 중생의 행복을 위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인 원각이 원융불이(圓融不二)함을 밝히고, 동시에 그 곳으로 안내하는 수행의 길을 단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처음 불교에 입문한 사람이 부처님의 지위(佛地)까지 이르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과정을 인지법행(因地法行)이라고 한다. 인지법행을 통해 수행자의 안목을 알아볼 수 있고, 수행법도 만나게 된다. 능엄경 편에서도 말한 삼매의 3가지, 사마타, 위빠사나, 선나를 적절히 섞어서 수행방법을 늘리면 '25가지 수행법'이 된다. 물론 상근기 수행자는 믿고 이해하여 즉시에 깨닫지만, 중근기는 이해한 뒤 실천행을 통해, 하근기는 방편에 의해 원각묘심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춘 눈높이 수행법이 담겨져 있다. 청정한 원각, 일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 우리도 〈원각경〉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때 바가바께서 신통한 대광명장에 드시어 삼매를 바로 수용하시니 모든 여래들이 광명으로 장엄하여 머무시는 자리이며, 이곳은 모든 중생들이 청정한 깨침을 하는 곳이며, 몸과 마음이 적멸하여 평등한 근본자리로서 시방에 원만하여 불이(不二)를 수순하시며, 불이의 경계에서 모든 정토를 나투었다. 대보살마하살 십만명과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이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당보살, 미륵보살, 청정혜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등이 모든 권속과 더불어 상수가 되어 삼매에 들어 여래의 평등한 법회에 함께 참여하였다."

바가바는 부처님의 이칭(異稱)이다. 법신이나 보신의 의미가 깊은 부처님 명호다. 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니 모든 여래의 광명이 함께하고 중생들도 모두 깨친다는 그 곳은 정토, 즉 불국토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각양각색으로 차별되어 있지만 적멸인 이곳에서는 중생이나 부처님이 모두 평등하다. 부처님과 중생이 평등하니 이 둘이 차별 없음은 당연한 일이라 불이수순(不二隨順)이라 한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평등', '불이', '청정', '자유자재'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아마도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이 말을 듣기만 해도 평온한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그대들은 모두가 나와 더불어 평등하니 청정한 부처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문수사리보살(Manjusri, 묘길상)이 부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① 부처님이 최초에 일으켰던 마음으로 수행한 즉 인지법행에 대하여,

② 보살들이 대승법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여의는 방법에 대하여,

③ 말세중생으로 하여금 대승을 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돌직구로 물었다.

"대견하고 기특하구나,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미래의 말세 중생을 위하여 이렇게 묻는구나. 자세히 듣거라. 내 이제 그대들을 위해 말하리라."

〈서울 반야사 주지〉

내 안에 무한한 지혜가 있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㊳ 어머니와 금강경

이제 나는 금강경 수행으로 어리석고 캄캄했던 마음을 극복하여 지혜를 실현한 나의 체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4년 1남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일에 무관심한 분이셨기에 중학교 때부터는 어머니 혼자서 가정을 꾸려온 셈이었는데, 의지할 곳 없는 어머니에게 유일한 아들인 나는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허덕허덕 가정을 꾸려 나가는 어머니가 늘 딱하게 생각되어 고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내가 이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데 취직해서 어머니가 먹고사는 걱정은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네가 대학만 졸업하면 우리 집안은 아무 걱정 없다"고 하시며 성심껏 학비를 조달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 후 정작 취직할 때가 되었지만 도인을 만나 출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란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데 딱 그 처지가 된 것입니다.

"네가 수도하러 가면, 네 동생과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사니?"

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금강경을 가르치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으니 100일만 공부하고는 곧 집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얼버무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울며 매달리던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며 상당 기간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부처님 공부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정을 끊어 놓고 신의를 배반하게 하는 공부인가?'

슬픈 감정이 북받치는 날에는 부처님 공부고 뭐고 다 던지고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에는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은 슬픔으로, 슬픔은 공부의 퇴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 애틋한 정이 마음을 닦는 데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절대적 존재임이 틀림없는데, 밝은 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방해하는 존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종종 선지식께서 "정말 너희 어머니가 불쌍한 것이냐? 네 마음에 불쌍하게 보는 소질이 있어서 너희 어머니가 불쌍한 존재로 보이는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가 불쌍한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에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소질이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불쌍하게 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식께서는 자주 깨우쳐 주십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고 바로 네 생각일 뿐이다. 그 생각이 착각이요, 잘못된 것인 줄 알아라.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이라 하였다.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란 바로 네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는 그 생각이 착각이요, 잘못인 줄 알라는 뜻이다.

즉견여래(則見如來).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생각을 정성껏 바치다보면 마침내 너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능력자로 바뀌게 되며, 무지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 결국 밝아진다는 뜻이다. 만일 불쌍한 생각이 잘 안 바쳐진다면 그 마음에 대고 지금 이야기한 금강경 사구게 즉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여래'를 자꾸 되풀이 염송하라. 또는 그 불쌍한 어머니의 얼굴에 대고 정성껏 미륵존여래불을 염해라."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구지 선사의 일지두선(一指頭禪)

무엇이 불법의 대의 입니까? 구지 선사는 누가 무엇을 묻든 지간에 일생 동안 검지 손가락 하나만 세워 보였다. 구지 선사 곁에서 시봉 하던 시자가 있었는데, 어느날 선사가 출타중 마침 어떤 스님이 찾아와 "요즘 스님의 법문은 어떠신가?"하고 물으니 아무 말없이 검지 손가락을 들어 보여 주었다.

매일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 스님의 흉내를 낸 것이다. 선사께서 돌아오셔서 "누구 찾아온 자가 없었더냐" 말하니 시자가 말했다. 하루는 선사께서 주머니 칼을 몰래 숨기시고, 시자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 인고" 말하니

시자가 검지 손가락을 세워 보이자, 선사께서 얼른 그 검지 손가락을 잡고 칼로 잘라 버리니 피를 흘리며 달아나자, 구지 선사께서 "아무게야"하고 시자를 부르셨다. 시자가 울면서 고개를 돌리자, 재빨리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 인고" 하시니, 시자가 얼른 검지 손가락을 세우려다가 손가락이 없는 것을 보고 홀연히 깨쳐 버렸다. 손가락의 뿌리(空性)를 본 것이다.

관색관공(觀色觀空) 즉색공(卽色空)이라, 즉 '이 뭣고'로 색을 관하니 색에서 공을 본 것이다. 중생들은 색(色) 성(聲)을 필연적으로 쫓아 따라 가는 꿈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이 뭣고' 수행은 내안의 공성(空性)으로 회귀(回歸)시키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인 것이다.

구지 화상이 태산에 토굴 짓고 정진 하고 있을 때 하루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웬 비구니 스님이 혼자 육환장을 짚고 삿갓 쓰고 찾아와 예를 갖추지도

> **"중생들은 색(色) 성(聲)을 필연적으로 쫓아 따라 가는 꿈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이 뭣고' 수행은 내안의 공성(空性)으로 회귀(回歸)시키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인 것이다"**

않고 거만하게 선상(禪床)을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러자 구지 화상이 "비구니는 비구니의 예를 갖추어야지" 말하자 "스님의 본래 면목을 바로 일러 주시면 삿갓을 벗고 오체투지하여 예를 올리겠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죽자 살자 수행한다고 했지만 비구니에게 꾸짖음을 당한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분한 생각이 들어, 내일 토굴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 백발 노인이 나타나 현몽하며 "내일 큰 도인 스님이 와서 너에게 법을 주실 것이니 기다리고 있거라"고 명했다.

저녁때가 되어서 노스님이 토굴에 찾아오니, 구지 화상이 실제 비구니에게 당한 일을 설명드리며 가르침을 청하자, 묵묵히 계시다가 찰나에 검지 손가락 하나를 세워드는 순간 구지 화상은 확철대오 했다.

이 사람이 바로 천룡(天龍) 스님이다. 그는 마조 스님의 제자 되는 대매법상(大梅法常) 스님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 공안(公案)에 대한 성철 스님의 송(頌)은 이렇다. "삼천대천세계에 큰 불이 일어나 부처도 조사도 다 타고 없어 천지(天地)가 텅 비었는데, 다시 거기에 청산은 옛날과 같이 흰 구름속에 솟아 있네. 혀끝을 삼천리 밖에서 놀리니 유리 항아리 속 별천지의 해와 달이 스스로 분명하다"고 하였다. 유리 항아리 속 별천지에 해와 달이 분명하다는 이 뜻을 바로 알면, 구지 화상이 확연히 깨친 소식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야부 스님 송(訟)에 "천척사륜직하수(天尺絲綸直下垂) 일파재동만파수(一波纔動萬波隨) 야정한수어불식(夜靜寒水魚不食) 만선공재월명귀(滿船空載月明歸)"라는 것이 있다. 이를 풀이하면 "천길이나 되는 낚시줄을 깊은 바다에 드리우니 한 물결따라 만가지 파도가 뒤따르네. 밤은 깊고 물이 차니 고기 하나 물지 않으니 빈 배에 허공(虛空)만 가득싣고 달빛속에 돌아오네"라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